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교약전(殉敎略傳)

1. 박상근 마티아의 생애(1837-1867)

박상근 마티아는 경상북도 문경에서 아전(하급관리)을 지낸 사람으로, 중년에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생활하였다. 또 관청에 있었으므로 신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

마티아는 평소에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들은 물론 이웃 사람들에게 열심히 천주교 교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비신자 어린이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든지 그곳으로 달려가서 대세를 주곤 하였다.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난 뒤, 마티아는 3월 중순경 좁쌀을 사기 위해 칼래(N. Calais, 姜) 신부가 숨어 있던 한실(현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로 갔다. 그런 다음 칼래 신부와 함께 문경으로 돌아온 마티아는 자신의 집으로 와서 신부를 숨겨 주었다. 그러나 3일 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 마티아는 새로운 은신처를 찾기 위해 칼래 신부와 함께 다시 한실로 가야만 하였다.

이때 칼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이 보이는 산에 오른 뒤 마티아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그가 위협에 빠지는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자 마티아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신부님 곁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 습격을 당했다면 신부님께서서는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하실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서 죽겠습니다.”

결국 칼래 신부의 명예 순종하여 그와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와 있던 박상근 마티아는 얼마 후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 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천주교를 봉행한다’고 명백하게 신앙을 증거 하였으며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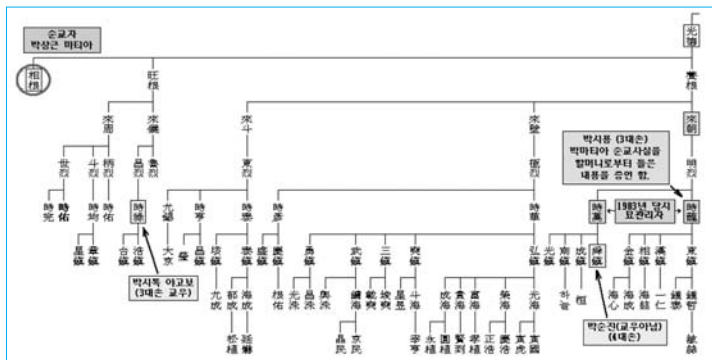
그때 상주 옥에는 문경 인근에서 끌려온 교우들이 많이 있었다. 마티아는 형벌을 받고 옥으로 돌아온 후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고 권면하였고, 많은 교우들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마티아도 마침내 관장의 명예 따라 옥중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 때가 1867년 1월(음력 1866년 12월)로 당시 그의 나이는 30세였다.

순교하기 직전에 마티아는 성호를 긋고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고 한다. 그리고 순교 후에는 그의 가족들이 시신을 찾아다 고향에 안장하였다.

2. 박상근 마티아의 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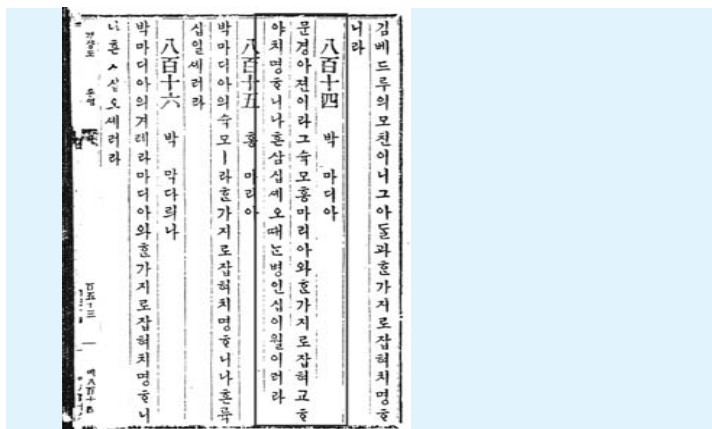
박혁거세의 31세손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가 밀성대군(密城大君) 박언침(朴彦枕)으로 만들어진 밀양박씨(密陽朴氏)이며, 셋째 아들은 속함대군이며 함양, 군위 박씨의 시조다. 함양박씨는 고려시대에 예부상서를 지냈으며, 함양군에 봉해진 박선(朴善)을 시조로 삼고 있고, 종파는 모두 6개 과로 나눌 수 있다. 박상근 마티아는 6개 과 중 고려시대 판삼사사(判三司使)를 지낸 박지량(朴之亮)을 시조로 하는 “판삼사사공파 응복 종중 광덕후손”에 속한다. 이 문중이 언제부터 문경 마원에 터를 잡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1866년 병인박해 당시 박상근 마티아는 중인신분으로서 문경아전(聞慶衙前)이었다. 순교 당시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사는 이어지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인 양근(養根)과 왕근(旺根)의 후손들이 4대째 이어오고 있다. 1983년 묘 발굴 당시 묘를 관리하였던 후손은 3대손 시룡(時龍)과 시만(時萬)과 시록(時祿) 등이었는데, 이 가운데 신자는 왕근의 3대손 박시록(야고보) 가계였지만, 현재 마원성지는 여전히 함양박씨 집안 후손들이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묘소를 돌보고 있다. 다만 함께 순교한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의 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며, 그들의 묘 또한 찾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가계도
(함악박씨 판삼사사공파 응복종중 광덕후손 계보도)



3. 박상근 마티아에 관한 교회 안의 공식 기록

1) 『치명일기』, 정리 번호 814번



박(상근) 마티아

문경(聞慶) 아전이라. 그 숙모 홍 마리아¹⁾와 한가지로 잡혀 교(絞)하여 치명하니, 나이는 30세요, 때는 병인(1866) 12월(양력 1867년 1월)이러라.²⁾

2)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 정리 번호 43번³⁾

『치명일기』 811의 김 요셉, 812의 김 베드로, 813의 모 막달레나, 814의 박(상근) 마티아, 815의 홍 마리아, 816의 박 막달레나 이 여섯 사람은 다 함께 교한 치명이니, 그때 옥사장 황유록이가 다 거행하고, 또 치명 시에 성호경, 예수, 마리아 혹은 무슨 말씀 많이 하되, 못 알아듣던 말을 자세히 다 하옵더이다.

8인⁴⁾의 치명 사정은 동래 초량(草梁) 사는 박 프란치스코 증인.

3) 『병인치명사적』 권3(1923. 6. 6), 56쪽⁵⁾

박(상근) 마티아는 문경 아전이라. 중년에 입교하여 규구(規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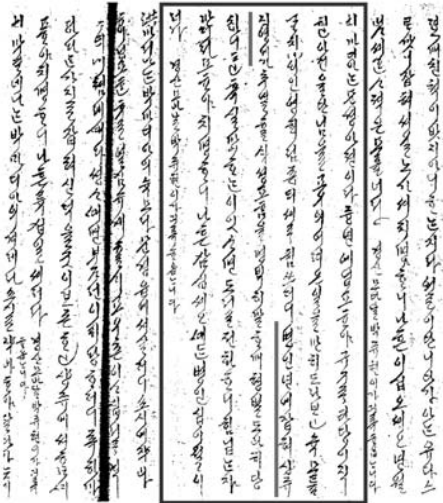
1) 홍 마리아 : 『치명일기』, 정리 번호 815번.

2) 박상근(마티아)의 무덤은 1983년 초 안동교구 김옥태(레오) 신부에 의해 박씨 문중 산에서 발견되었으며, 1985년 9월 15일 현재의 위치(경북 문경시 문경읍 마원리)에 새 무덤이 조성되고 유해가 안치되었다(<http://www.acatholic.or.kr>).

3) 『병인치명사적』 권1(1923. 2. 2), 56쪽과 동일.

4) 위의 여섯 사람 및 『치명일기』, 정리 번호 183번의 박 사도 요한, 810번의 김 수산나.

5) 『병인치명사적』 권4(1923. 6. 7), 31쪽 ; 『박순집 증언록』 권3, 정리 번호 129번과 동일.



를 타당히 지키고, 아전을 다니므로 교우의 어려운 일을 많이 돌아보고, 숙모(홍 마리아)를 가르치고, 외인 영해(嬰孩) 임종 대세를 힘쓰더니, 병인년에 잡혀 상주(尙州) 진영에 가 추열(推閱)할새, 성교함을 명백히 말하매 형벌도 과히 당하지 아니하고, 혹 실망하는 이 있으면 도리를 권화하

니 힘입은 자 많더라. 교하여 치명하니 나이는 30세요, 때는 병인 12월이러라.

경산 모과골⁶⁾ 박주현이가 기록하옵니다.

4) 칼래(N.Calais) 강신부의 서한(1867년 2월 13일자)⁷⁾
(1866년) 3월 15일경 문경읍에 살던 교우인 박(상근) 마티아와 예비신자였던 그의 매형이 조를 사러 저희 마을(즉 한실 교

⁶⁾ 모과골 : 현 경북 경산시 남천면 산전리.

⁷⁾ 위의 서한은 칼래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신학교의 알브랑(Albrant) 교장 신부에게 보낸 서한이다.(파리 외방전교회 고문서, Vol. 579, pp. 1270-1273)



강 신부님 : 경상북도의 사도
1860~1866년 11월

우촌)⁸⁾에 왔습니다. 저희는 짧은 모임을 갖고, 이것이 하느님께서 저희를 다른 곳으로 한 34일 정도 피신하도록 마련하신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문경읍에는 불과 15명의 교우들만 있었고, 이들은 신분을 감춘 채 살고 있어 인근에 널리 알려진 교우촌보다 훨씬 안전한 은신처가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저를 그의 집에 모시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예비신자(박 마티아의 매형)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행여 그의 집에서 붙잡히기라도 한다면 그의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심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세 명은 밤 11시쯤 길을 나섰

8) 한실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성내리. 칼래 신부는 경상도의 교우촌들을 순방하던 도중 병인박해 소식을 듣고는 한실 교우촌에 은거하였다.

습니다. 희미한 어둠 덕분에 길가에 있는 외교인 마을 45 곳을 무사히 지났으며, 새벽 2시쯤 문경읍내로 들어와 마티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머물 방은 아무도 쓰지 않던 빈방이라 큰 항아리와 가구들이 가득했는데, 이 물건들을 차곡차곡 쌓아 제가 눕기에 충분한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박 마티아와 그의 매형은 양반은 아니라서 조선의 풍습에 따라 그들의 집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반의 집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선 밖에서 부른 다음에 주인이 나와 응접실 구실을 하는 별도의 방(즉 사랑채)으로 손님을 모십니다. 이처럼 양반의 집에서는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의 집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마티아의 집도 군손님들이 거의 종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행여 누군가가 제 방문을 열지는 않을까 두려워 줄곧 방문을 잠가두어야 했습니다. 또 행여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누군가가 제 식기 소리를 들을까봐 나무로 된 식기로 먹었습니다. 심지어 코도 소리 내어 풀지 말고 기침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였고, 저도 그 같은 지시를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침만은 어쩔 수가 없어서 계속 기침이 나왔습니다. 이는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제 방이 습한데다가 여전히 매우 추운 때임에도 군불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온갖 제약 속에서 둘째 날 밤을 보내던 중 저는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방문 잠그는 것을 깜박 잊었습니

다. 밤 10시경 제가 어둠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 하나가 제 방문을 열고는, 예전에는 아무도 없다고 알았던 방에 누군가가 있음을 보고 놀라하며 3·4분 정도 저를 응시했습니다. 이따금 그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와 보려는 듯 고개를 앞으로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내 아무 말 없이 가버렸는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침을 한 탓에 것처럼 불쑥 문을 열었을 겁니다.

11시 혹은 자정 무렵 모두가 물러간 뒤 저는 마티아를 불러 떠나려 하니 봇짐을 챙겨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어디로 가시려고요? 이곳과 인근 사방 수십 리 안에는 신부님께서 피신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보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걸세”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방금 일어났던 일을 그에게 들려준 뒤, 저는 그에게 홀로 살며 신심이 깊은 56세 가량의 과부인 여교우를 찾아가 하루만 저를 재워줄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일렸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집을 택한 이유는 읍의 다른 교우들은 저를 은신시켜 줄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닭이 울 무렵 마티아는 황급히 돌아와 심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그곳에 가시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신부님이 이곳에 있다고 말하자 그 여교우는 두려움에 떨면서 한

마디도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포졸들이 오늘 중으로 저를 붙잡으러 올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말하기를, “한실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날이 밝기 전에 절반도 못갈 터이니 차라리 산꼭대기로 가로질러 갑시다. 그렇게 돌아가면 길가에 있는 모든 마을들을 피해 갈 수 있고, 저녁이면 한실에 도착할 거요.”

우리가 문경을 떠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문경읍의 포졸들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를 붙잡으러 왔을 때는 이미 제가 떠난 뒤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티아와 저는 숲이 우거진 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마른 과일(꽃감인 듯)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저희는 줄곧 산을 탔습니다. 마티아는 도시에 서만 지내온 터라 고된 산 타기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올 때 자주 넘어져 그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오쯤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고,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저희 이마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으며, 둘 다 허기와 갈증이 차올랐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막 짝이 움트기 시작한 야생초 몇 뿌리를 캐내 갈증을 풀었으며, 저는 마티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0리만 더 가면 한실이 내려다보이

는 산꼭대기에 닿을 테고, 어느 산봉우리에서도 그 산을 알아볼 수 있을 터이니, 나는 이 길을 거뜰히 갈 거요. 자네는 너무 지쳤으니 자네가 알고 있는 이 근처 마을을 찾아 끼니를 들어요.” 그러자 이 인정 많은 교우는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찌 초행길이신 이 산에 신부님을 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여 한 실에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님께서 피신할 곳이 없을 터인데. 거듭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갈 겁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참으로 기쁘게 신부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상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자기 희생의 다툼 중 이 헌신적인 교우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제가 큰 위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밤까지 저를 따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내심 저는 더는 물려서선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를 너무도 감동시킨 이 사람에게 명령이라는 방법을 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티아, 내 말대로 할 것을 명하겠네. 자네가 가져온 마른 과일 절반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내게 주게. 그리고 자네 신부인 내 말을 따르게.” 이 말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고함을 쳤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비수에 찔린 듯 아팠고, 저 또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저희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저는 혼자 떠났습니다. 그가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제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 하나가 나오면서 제 시야에서 그가 사라졌고, 저는 하느님께 저를 맡기고 줄곧 걸었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가장 짧게 질러가는 쪽을 택해 걸으며, 한실의 산들을 시야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⁹⁾

4. 박상근 마티아의 순교지 상주 옥터

1) 상주읍성과 옥터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당시 수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갇히고 목숨을 잃은 곳으로 전해오는 상주 감옥은 1930년대 정상우(鄭祥瑀)가 그린 상주읍성도(尙州邑城圖)에 나타난다. 이 지도에 의하면 상주성의 남문인 홍치구루(洪治舊樓)를 남쪽으로 나서면서 약

9) 이후 갈래 신부는 ‘한실 교우촌 → 문산 교우촌(현 경북 상주시 사벌면 퇴강리) → 한실 교우촌 → 연풍 → 한실 교우촌’을 거쳐 진천 삼박골 교우촌(현 충북 진천군 백곡면 양백리)에 도착해서 머물다가 5월 말경에는 자신의 거처가 있던 목천 소학골 교우촌(현 충남 천안시 북면 남안리)으로 갔다. 그리고 1866년 10월에 조선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건너갔다.

20m 정도의 거리에 있는 해자(壕字)밖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즉 상주읍성 남문과 북문을 잇는 길의 일직선상에서 남동쪽에 원형의 담을 쌓고 그안에 동서 양쪽에 기와를 올린 남옥(男獄)과 여옥(女獄)을 배치하고 있었다. 일제 초기 일본인들이 측량한 지적도와 1930년경 정상우가 그린 지도를 비교해 보면 상주 감옥의 정확한 위치는 물론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상주에 읍성을 축성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려지 있지 않지만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1385)』에 의하면 1385년(고려 우왕 11년)으로 보고 있다. 아마 이때의 성은 고려 말 왜구의 침입에 대비해 쌓은 것으로 보인다. 상주읍성은 기록상 1885년까지 보수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1912년(壬子年) 성을 무너뜨리고 문루를 헐어 지금의 시가지 통로를 만들었고 해자(壕字)와 성(城)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는 기록으로 보아, 일제침략기 도시화 정책에 따라 일본인들이 상업 활동의 편의와 상가(商街) 요지(要地)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을 철거해 버린 것으로 짐작되는데, 상주 감옥 역시 읍성의 철거와 함께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2) 상주 관옥과 순교자

상주 관옥은 박해시대에 수많은 교우들을 인근지방에서 체포하여 구금하고 동시에 사형까지 진행했던 장소다. 1801년 신유박해와 1815년 을해박해에 관해서는 역사적 증언 진술이 남아 있지 않지만, 1827년 정해박해와 1839년 기해박해 그리고 1866년 병인박해 때 교우들의 체포상황과 치명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증언들이 존재한다. 특히 1827년 정해박해의 경우에는 신태보 베드로를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다른 교우촌들이 발각되었고, 여우목이나 한실의 경우에는 홍선대원군의 돌발적



인 박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가는 과정 안에서 발각되어 체포·구금·고초를 겪게 된다.

상주 인근지방의 교우촌들은 우선 잣골(모동면 신흥리), 명에목(충청도 내속리면 구병리), 앵무동(화남면 평온리), 한실(문경시 마성면 상내리), 마원(문경시 문경읍 마원리), 여우목(문경시 문경읍 여우목), 모전(문경시 모전동) 등이다. 기록에 따르면, 이곳에서 공동체로 혹은 개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관아의 포졸들에게 체포된 교우들은 부지기수인데, 어떤 연유에 서인지 대부분 곧 석방되었지만, 신자들의 우두머리나 교리고사등으로 낙인찍힌 이들은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옥사하거나 혹은 치명 순교하였다.

2014년 여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시복된 문경 출신 박상근(마티아) 순교자가 1866년 병인박해 때 수감되어 고초를 겪다가 바로 이곳에서 순교하였고, 그분의 묘지는 마원성지에 조성되어 있다.

* 다음의 도표는 상주 관옥에 수감된 신자들 중 기록을 통해 확인된 순교자들의 명부이다. 상주 관옥에서 순교한 분들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감되어 순교한 분들도 있는데,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때 시복되는 순교자들 중 7분이 이곳 상주 관옥과 관련되어 있다.

상주 관옥과 관련이 있는 순교자 명부

■ 상주 관옥에서 순교한 분

성 명	출신지	체포된 곳(일자)	순교한 일자	행형
(福)박상근 마티아	마원	문경(1866. 12)	1866. 12. 18	교수
홍 마리아	마원	문경(1866. 12)	1866. 12. 18	교수
박 막달레나	마원	문경(1866. 12)	1866. 12. 18	교수
김 아우구스티노	갈매골	한살(1866. 12)	1866. 12. 18	교수
김 토마스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안토니오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베네딕토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빈첸시오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프란치스코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생원	미상	상동	상동	상동
김 생원의 조카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장 서방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장 서방의 아내	상동	상동	상동	상동
김 수산나	장사막	여우목(1866. 12)	1866. 12. 15	상동
김 요셉	충청도	한살	1866. 12. 18	상동
김 베드로	상동	상동	상동	상동
모 막달레나	상동	상동	상동	상동
서태순 베드로	장원	여우목(1866. 12)	상동	상동
서유형 바오로	산남(산양)	모전(1866. 10)	상동	상동
박 루치아	모전	모전(1866. 10)	상동	상동

■ 상주 관옥을 거쳐 다른 곳에서 순교한 분

성명	출신지	체포된 곳(일자)	순교한 일자	행형
(福)신태보 베드로	용인	жат골(1827)	전주(1839.5.29)	참수
(福)최조이 바르바라	여주	전라도 광주(1839(1827수감))	전주(1840.1.4)	참수
(福)박경화 바오로	홍주	멍에목(1827.4)	관덕정(1827.11.27)	옥사
(福)박사의 안드레아	홍주	멍에목(1827.4)	관덕정(1839.5.26)	참수
(福)안군심 리카르도	보령	앵무동(1827.4)	관덕정(1835)	옥사
(福)김사건 안드레아	서산	앵무동(1827.4)	관덕정(1839.5.26)	참수
(福)이윤일 사도요한	홍주	여우목(1866.11)	관덕정(1867.1.21)	참수

5. 박상근 마티아의 묘소가 있는 마원 성지

1) 마원성지 조성경위

(1) 순교자의 묘소 발견 경위

1981년 김옥태 신부(당시 함창본당 주임)는 문경 본당 노광명 신부(파리외방전교회 소속)로부터 마원공소 교우들을 통해 들었다는 순교자의 묘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공소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그 묘와 관련이 있는 후손 박시룡(야고보)과 박시룡(朴時龍, 3대손)을 만나 그들의 증언을 통해 박씨의 문중산에 순교자의 묘로 전해 내려오는 버려진 묘를 확인하게 되었다. 김옥태 신부는 박시룡으로부터 “그 묘는 증조 할아버지 되는 상근씨 묘인데, 소년시절에 할머니께서 ‘그 할아버

지는 교를 믿다가 잡혀 돌아가신 분이다. 현감이 교를 아니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으나 내가 믿는 것을 왜 안 믿는다고 하겠느냐,
나는 죽어도 믿는다고 해서 잡혀 가셨다. 샷갯을 쓰고 잡혀가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글 좋고 구변 좋고 인물도 참 좋았는데, 미
성으로 돌아가셨다.’ 고 하면서 늘 애석하게 여기셨다.”는 증언
을 듣게 되었다.



(2) 묘지의 성역화 과정

천주교안동교구 문경지구는 1983년 겨울 지구사목회의 때,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묘소로 확실히 되는 문경을 마원 1리의 버려진 묘를 순교 성지로 조성하기를 결의하였다. 이후 후손들과 묘 발굴과 이장에 합의하고, 백화산 아래 선조들의 발길과 숨결이 스며있는 현 부지(마원1리 600-1번지)를 매입하였다. 1985년 부활절 이후부터 정지작업, 축대공사, 잔디작업, 석물(둘레석, 비석, 제대, 상석 등)공사, 화장실 공사를 하나하나 진행해 왔다. 한편 성지조성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1984년 문경지구 6개 본당이 두 차례씩 특별헌금을 실시하였고, 교구에서도 1985년 순교자 축일(9월 22일)의 교구 내 모든 본당헌금을 성지사업비로 지원하였다.

(3) 묘소 발굴 및 이장

1985년 9월 9일, 김재문 신부(당시 시무처장), 조중을 신부(당시 사목국장), 김옥태 신부, 오성백 신부(당시 점촌본당 주임), 조창래 신부(당시 모전본당 주임)와 후손들(박시록 야고보, 박순진)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묘발굴 작업과 유해검사가 진행되었다. 당시 발굴 작업에서 치아 16개, 좌우와 상하 박골, 좌우 대퇴골, 좌우 하퇴골이 발굴되었다. 이 발굴 작업을 통해 몇 가지 사항이 확인 되었는데, 그 유해는 키 170cm



정도의 장대한 남자의 뼈라는 점과 유해의 배치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었다.

과거에는 사형을 당한 사람의 시신은 바로 놓지 않고 뒤집어서 묻는 풍습이 있었는데 박 마티아 역시 그렇게 뒤집혀 매장된 것이다. 이는 국법이 금하는 천주교를 믿다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단서가 된다. 묘를 발굴한 후 문경지구는 유해를 본당별로 순회하며 순교현양 성시간을 가졌고, 이후 1985년 9월 15일(주일) 당시 교구장이었던 두봉 레나도 주교의 주례 하에 순교자 현양대회 및 이장식을 가졌다.

6. 박상근 마티아의 순교 영성

순교복자 박상근 마티아의 생애는 참으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기껏해야 1837년에 출생하여 1867년에 치명순교하기까지의 서른 해의 삶이 전부이며, 오롯이 하느님께 바쳤다. 짧다면 짧은 그의 생애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우리는 마티아의 생애가 예수님의 삶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박상근 마티아의 순교자적 영성은 그의 열정적인 신앙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열정적인 신앙적 근거는 결국 예수그리스도의 복음말씀 안에 원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신앙인으로서 박상근 마티아의 모습을 비교적 자세히 그려주고 있는 대목은 당시 관할구역 선교사였던 칼래 강(姜) 신부의 ‘1867년 2월 13일자 서한’과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특별 위원회에 제출했던 ‘박상근 마티아의 순교약전(殉敎略傳)’에 잘 나타나 있다. 사실 모든 순교자들이 그러하듯이,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영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5,11)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마태6,24)라는 주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월 8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에

대한 시복을 최종 결정했다고 주교회의가 2월 9일 공식확인하였다. 주교회의 의장인 강우일 주교는 124위 순교자 시복을 축하하는 전언을 통해 “하느님께서 한국 교회에 커다란 은총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였다. 이번 시복의 확정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지난 1984년에 성인으로 시성된 김대건 신부를 앞세운 103위 시성(諡聖)과는 달리 평신도를 앞세웠다는 점이다. 이번 교황청의 시복결정에 대해 시복시성교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손꼽아 기다려 온 기쁨인지 모르겠다. 모진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신유박해(1801년) 순교자가 53명, 기해박해(1839년)를 전후한 순교자 37명, 병인박해 순교자 20명, 신유박해 이전 순교자가 14명이다. 이 가운데 안동교구와 관련된 시복자로서는 대구 경상감영 치명자 17위, 원주감영 치명자 1위, 전주감영 치명자 2위, 상주관아 치명자 1위다. 이 가운데 특별히 문경에서 체포되고 상주로 압송되어 치명 순교한 박상근 마티아를 주목한다. 그분은 안동교구에서 태어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고 안동교구에서 순교한 분들 중에 첫 복자로 탄생되었기 때문이다.

1. 순교의 의미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보편성’의 바탕 위에 교회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순교자들은 곧 이러한 보편타당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그 믿는 바를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나가갔던 것이다. 이것을 ‘순교’(殉敎)라고 말한다.

가톨릭교회 역사 안에서 순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어쩌면 하느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담보하지 않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알아낼 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의미를 살리지도 못하는 ‘화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이 방면에 대해서는 교회역사 안에서 많은 연구자들 특히 신학자들이 오랜 담론 끝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놓고 있지만, 이 문제에 관한 해답을 찾으려면 거두절미하고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특히 신약의 복음서 안에서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부활하신 뒤에도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해답을 찾는 것이 가장 명백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시 하셨습니다.

1.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 5,11)

2.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19-20 참조)

3.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키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마태 10,28)

4.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

5.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46절 이하)

6.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7. “어떠한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루카 16,13)

8.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절개 없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마르 8,36-37)

9. “사람의 아들은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나서 죽이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마르 10,33-34)

10.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 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겹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다.”(묵시 7,14)

2. 박 마티아의 순교 영성

1)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요한 5, 17)

박상근 마티아는 ‘일 하는 순교자’였다. 문경관아에서 아전(衙前)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였고,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교리의 가르침을 착실하게 지키면서 신자들은 물론이고 외교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되어 주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퇴근 후에는 숙모 흥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등 세상일에서나 교회 일에 있어서 언제나 신앙인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 이는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을 하는 것이다.”(요한 5,17)라는 말씀에 충실하였을 뿐 아니라, 동시에 바오로 사도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2테살 3,16)는 말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2)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7)

박상근 마티아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라.”(요한 15,17)는 말씀을 온 몸으로 실천한 순교자였다. 이 실천은 자신이 몸담고 일을 했던 관아에서는 물론이고 특별히 마지막 순간 칼레 강 신부와 우정 어린 이별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1866년 3월 중순경 그는 한실에 숨어 지내던 칼레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와 숨겨주었으며, 3일 뒤 산속에서 위험천만한 순간에 “돌아가시오.”라는 신부님의 요청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신부님 곁을 떠나다니요. 혹시 한실이 습격을 당했다면 신부님께서 어디로 가시렵니까? 은신하실 곳이 없지 않습니

까? 그러니 신부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신다면, 저도 기꺼이 따라 죽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이별장면에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17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별장면’을 떠올려 볼 수 있겠다. 아울러 사제와 신자가 교회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친교적 우정’의 모범을 볼 수 있다. 사제는 신자들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그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신자들은 사제를 존경하고 순명하면서 사랑과 일치 of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교회는 이런 관계형성의 기반 위에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공동체 안에서 구현해야 한다.

박상근 마티아와 칼레 강 신부님이 보여준 깊은 우정에서 우리나라의 ‘친교(親交, friendship=Koinonia)’는 개인주의적인 신앙형태가 심화되어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져가는 오늘의 교회 상황에서 그리고 사제와 신자들 사이의 친교가 점차 약화되어가는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볼 만한 영성적 가치가 있다.

3)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루카 17,10)

박상근 마티아는 “해야 할 일”(루카17,10)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한 그 일을 할 줄 아는 순교자였다. 그는 칼레 신부님의 명

에 순종하여 그와 이별하고 집으로 돌아온 뒤, 얼마 후 숙모 홍 마리아와 친척 박 막달레나와 함께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갔다. 이윽고 문초와 형벌을 받게 되자 그는 ‘천주교를 봉행한다.’ 고 명백하게 신앙을 증거 하였으며 어떠한 위협과 형벌에도 굴하지 않았다. 당시 상주 옥에는 문경 인근에서 잡혀 온 많은 교우들이 구금되어 있었는데, 마티아는 형벌을 받고 옥으로 돌아간 후에는 함께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자’ 고 권면하였고, 이에 많은 교우들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 순교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곧 세상 안에 파견된 자로서의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했던 순교자였다.

4)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마태 5,37)

박상근 마티아는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 라고만 하여라.”(마태 5,37)는 주님의 예언자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순교자였다. 그는 관아에서 일을 할 때나 이웃 사람들 즉 신자나 비신자들을 만날 때에도 항상 그러하였다. 그리고 칼레 신부와의 관계 안에서 뿐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언제나 신앙인으로서 한결같은 태도를 견지하였다.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에는 단연코 ‘아니오’ 라고 말 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신앙인이었고, 자신의 신념을 고백해야 할 때에는 주저함 없이 ‘예’ 라고 말하는 신앙인이었다. 한 마디로 말해 박상근 마티아는 언제나 어디서나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 을 지키면서 목숨을 다해 주님을 충실이 따른 신앙인이었다.

박상근 마티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모습을 참으로 많이 닮았음을 알 수 있다. 사실 그의 신앙적 삶의 태도를 온전히 설명해내기란 쉽지 않지만, 굳이 설명하자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빌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로마 8,35)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것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 8,37-39)

지난 199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103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롭게 순교 사실이 드러난 치명자들과 지역에

서 현양되고 있던 분들을 포함하여 시복시성을 통합추진하기로 하였고, 드디어 우리는 124위의 순교복자를 얻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이번 시복식을 통해 우리는 한국천주교회가 순교자들의 꺼지지 않는 신앙의 불꽃, 끓어오르는 뜨거운 신앙의 피흘림 위에 이룩된 하느님의 교회임을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가슴속에 되새기고, “기쁘고 떳떳하게”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맞갖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순교자의 후손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길이기 때문이다.





부록

안동교구 지역과 관련이 있는 순교복자 명부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례지 미사 전례



1. 안동교구 지역과 관련이 있는 순교복자 명부

복자(位)	성명(세례명)	치명일자	살던곳(관할본당)	치명 터
1815년 을해박해 순교복자(12位)				
69위	김윤덕(아가타 막달레나)	?-1815. 4월 말(5월초)	노래산(청송)	대구
70위	김시우(알렉시오)	1782-1815. 5월(6월)	머루산(영양)	대구
71위	최봉한(프란치스코)	?-1815.5	노래산(청송)	대구
72위	서석봉(안드레아)	?-1815. 말	노래산(청송)	대구
73위	김강이(시몬)	?-1815. 12. 5	머루산(영양), 갈전(영양)	원주
74위	김희성(프란치스코)	1765-1816. 12. 19	곧은정(춘양)	대구
75위	구성열(바르바라)	?-1816. 12. 19	노래산(청송)	대구
76위	이시암(안나)	1782-1816. 12. 19	머루산(영양)	대구
77위	고성대(베드로)	?-1816. 12. 19	노래산(청송)	대구
78위	고성운(요셉)	?-1816. 12. 19	노래산(청송)	대구
79위	김종한(안드레아)	?-1816. 19	우련전(봉화)	대구
80위	김학춘 아교보	?-1816. 12. 19	노래산(청송)	대구
1827년 정해박해 순교복자(3位)				
84위	박경화(바오로)	1757-1827. 11. 15	멍에목(화령)	대구
85위	김세박(임브로시오)	1761-1828. 12. 13	안동	대구
86위	안군심(리카르도)	1774-1835	앵무동(화령)	대구
1827년 정해박해 때 체포, 1839년 기해박해 때 치명, 순교복자(5位)				
87위	이재행(안드레아)	1776-1839. 5. 26	곰직이(봉화)	대구
88위	박사의(안드레아)	1792-1839. 5. 26	멍에목(화령)	대구
89위	김사간(안드레아)	1794-1839. 5. 26	앵무동(화령)	대구
91위	신태보(베드로)	?-1839. 5. 29	잣골(화령)	전주
101위	최조이(바르바라)	1790-1840. 1. 4	잣골(화령)	전주
1866년 병인박해 순교복자(1位)				
112위	박상근(마티아)	1837-1867. 1	문경	상주
농은 홍유한 선생 후손 순교복자(5位)				
21위	홍낙민(루카)	1751-1801. 4. 8	서울	서소문밖
32위	강완숙(골롬바)	1761-1801. 7. 2	서울	서소문밖
50위	홍필주(필립보)	1774-1801. 10. 4	서울	서소문밖
97위	심조이(바르바라)	1813-1839. 11. 11	광주	전주
100위	홍재영(프로타시오)	1780-1840. 1. 4	광주	전주

※ 안동교구에서 출생하신 시복자로 박상근 마티아 외에 69위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가 있습니다.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함창 은재(이안면) 출신입니다.

※ 참고적으로, 농은 홍유한 선생님의 후손 중 이미 시성이 되신 분은 홍병주(베드로, 1789-1840)와 홍영주(바오로, 1801-1840) 성인이 있으며, 두 분 모두 서울 당고개에서 참수 치명 되셨습니다.



2. 복자 박상근 마티아 순례지 미사 전례

시작 성가: 283번 순교자 찬가

본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

제1독서 〈 로마서 8,31ㄴ-39 〉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 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시편 126(125), 1-2 가. 2ㄷㄹ-3.4-5.6(◎ 5)〉

◎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

○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

○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 겹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

○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 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

복음 환호송 〈1베드 4,14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 9,23-26〉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보편 지향 기도

+ 형제 여러분, 우리가 순교 성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우리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샘이신 주님, 선조들의 순교 신앙을 이어받은 이 땅의 교회가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어려움들을 기꺼이 이겨 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성실히 전하게 하소서.

◎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의 주님, 세계의 모든 지도자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악을 없애고 인류 화해와 공동선을 지향하는 형제애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

3. 병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치유자이신 주님, 몸이 아픈 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 고통을 치유해 주시며, 그들이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받으며, 하루빨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도록 도와주소서. ◎

4. 안동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가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자신을 비우며 사제와 신자들이 친교의 우정을 나누면서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기쁘고 떳떳하게 증거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 순교 선조들의 굳은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너그럽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예물준비 성가: 210번 나의 생명 드리니

예물기도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 주시고, 복된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와 동료들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 자신을 주님께 맞갖은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

감사송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복된 순교자 박상근 마티아는 주님을 현양하려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피를 흘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었나이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에게,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증언할 강한 힘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성체 성가: 151번 주여 임하소서

영성체 후 묵상

〈칼래 강 신부님이 파리와방전교회 신학교의 알브랑(Albrant) 교장 신부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을 듣겠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순교복자 박상근 마티아와 선교가 칼래 강 신부님 사이의 교회적 친교의 우정을 되새겨 봅시다.〉

‘우리가 문경을 떠난 것은 참 잘한 일이었습니다. 문경읍의 점졸들이 우리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고는 말들이 많았고, 그들이 저를 붙잡으러 왔을 때는 이미 제가 떠난 뒤였습니다. 동이 틀 무렵 마티아와 저는 숲이 우거진 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먹을 거라고는 마른 과일(꽃감인 듯)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점심때가 지나도록 저희는 줄곧 산을 탔습니다. 마티아는 도시에서만 지내온 터라 고된 산 타기에는 익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산을 내려올 때 자주 넘어져 그가 얼마나 지쳐있는지 여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오쯤 깊은 골짜기에 다다랐고, 산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개울가에 앉았습니다. 저희 이마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으며, 둘 다 허기와 갈증이 차올랐고, 피곤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저희는 땅에서 막 싹이 움트기 시작한 야생초 몇 뿌리를 캐내 갈증을 풀었으며, 저는 마티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20리만 더 가면 한살이 내려다보이는 산꼭대기에 닿을 테고, 어느 산봉우리에서도 그 산을 알아볼 수 있을 터이니, 나는 이 길을 거뜬히 갈 거요. 자네는 너무 지쳤으니 자네가 알고 있는 이 근처 마을을 찾아 끼니를 들어요.” 그러자 이 인정 많은 교우는 제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찌 초행길이신 이 산에 신부님을 홀로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행여 한살에 아무도 없으면 어디로 가시려고요? 신부님께서 피

신할 곳이 없을 터인데. 거듭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부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갈 겁니다. 신부님께서 이 험한 곳에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참으로 기쁘게 신부님과 함께 죽을 겁니다.” 이상이 저희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자기 희생의 다툼 중 이 헌신적인 교우가 했던 말입니다. 그의 말은 울었습니다. 제가 큰 위험이 처해 있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 것도 먹지 못한 채 밤까지 저를 따르기는 불가능해 보였을 뿐만 아니라, 내심 저는 더는 물려서선 안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저를 너무도 감동시킨 이 사람에게 명령이라는 방법을 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티아, 내 말대로 할 것을 명하겠네. 자네가 가져온 마른 과일 절반을 챙기고 나머지 절반을 내게 주게. 그리고 자네 신부인 내 말을 따르게.” 이 말에 그는 저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고, 저는 고함을 쳤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비수에 찔린 듯 아팠고, 저 또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저희 둘은 함께 울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저희를 지켜보고 계셨으며,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몇 마디 말을 나눈 뒤 저는 혼자 떠났습니다. 그가 멀리 있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울고 있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눈을 제게서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산 하나가 나오면서 제 시야에서 그가 사라졌고, 저는 하느님께 저를 맡기고 줄곧 걸었습니다.

다. 저는 길을 따라 걷지 않고 가장 짧게 질러가는 쪽을 택해 걸으며, 한실의 산들을 시야에서 놓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영성체 후 기도

하느님 아버지, 거룩한 순교자들과 함께 미사성제를 봉헌하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

마침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